

“성숙한 신자의 기도”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전인격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한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받을 곳이 달리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일이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 금식, 절야, 장기간 때를 쓰는 아이처럼 큰소리로 외치며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시행한다.

그러나 “계약의 신” “능력의 신”이신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분만 “의지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다. 성도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을 대적, 불신, 불순종, 불충하는 사탄, 마귀 즉 붉은 용, 두 짐승으로 묘사된 거짓의 영이 우리의 원수다. 그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원수의 개가를 듣는 일은 성도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수치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소자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도록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신앙을 가진 성도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성도의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도록 하는 것이 ‘죄의식’이다. 고로 성도는 소시의 죄와 허물의 사유를 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방치한 채 문제의 해결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유의 근거는 자신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성, 자비로 즉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기인하는 것이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못 다한 성도나 공동체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짓눌림을 받을 것이라 했으나 못 다한 사명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도를 넘어뜨리거나 버리시지 않고, 절망과 저주에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은혜 입은 성도가 성경에서 찾아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과 깊은 신뢰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뜻을 바르게 보고 믿고 구해야 한다. ‘신실하시고’ ‘구원’ ‘공홀과 인자’ ‘죄는 기억치 않으시고, 죄인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성실, 정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은 양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홀과 의’가 만날 때 즉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하나님은 공홀을 베푸시면서 어떻게 의를 이루시는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하나님의 공홀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의인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믿고 있는 성도는 다시 기도로 이어진다.

-한국장로신문 [제 1582호] 2018년 2월 3일 발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대 담임목사로 청빙된 손달익 목사님이 주일 첫 설교를 담당하십니다. 오랜 교회분쟁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또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시던 성도님들까지 교회재건과 하나님의 은혜의 새날을 향한 힘찬 전진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당에 방역대책이 안전하게 세워져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 1부 예배를 분당에서, 수요 2부 예배는 웨민홀에서 드립니다.

분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유년부 예배는 부모동반 시에만 입장하여 참여 가능한 실시간 중계예배를, 새벽기도회와 다른 교육부서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준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530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양하림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브도, 보디소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도,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 성경으로 돌아가자! ”

■ **딤후 3:14-17**

1. 배우고 확신한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라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Ecclesia Reforma semper Reformanda)!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 개혁파 교회의 구호입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잘 개혁되었어도 세월이 가면서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거나 이탈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이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공정한 판단과 성경 진리의 엄격한 판단에 비추어 평가할 때 지상에서 완벽하다는 소리를 듣는 교회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여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개혁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 원점으로 돌아가 재정립한다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다는 것은 지나온 우리 인생이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교훈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디모데는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동행하면서 디모데는 사도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를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 귀로 듣고 배우고 온몸으로 체득한 그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한 것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망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 20:32). 기록된 성경 말씀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2.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

교회는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장 값지고 고귀한 생령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진리만이 구원의 유일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롬 10:17). 따라서 실지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비결은 성경진리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비록 40여 명이나 되는 인간 저자들이 존재하지만 그 말씀의 출처는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십시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파하고 보급하는 일에 어떤 방식이든 이바지하는 자가 되고, 성경이 유일한 것대임을 입증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진리 안에 머물라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성경의 효용성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16-17절).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자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워서 익히기 참이라고 확신하게 된 그 진리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조차도 성경 진리로 검증되고 단련되어서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맺는 말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배웠고 확신한 그 진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유일한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행실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는 유일한 이 진리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뚝 세움을 입는 자가 되십시오. 이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처차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신 32:46-47).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전재홍 목사	양춘경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행 2:17-1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7(삼위일체주일)...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5(50)...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행 11:19-2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406(464)...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25:1-2 인 도 자
 찬 송 384(434) 다 합 께
 기 도 송인수 집사
 성 경 수 1: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여호수아 강해 1” ... 설 교 자
 * 찬 송 246(221) 다 합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기 도 I부: 이선희5 권사 II부: 김찬진 권사
 성 경 대하 16:7-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끊어지지 않는 줄”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6월 세례(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6월 20일(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 5월30일(주)~6월 6일(주)

- 세례 교육 : 6월 13일(주) 오후1시 506호

- 세례 문답 : 6월 13일(주) 오후2시 506호

- 세례식 : 6월20일(주) 오후 5시 찬양예배 시 본당

※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사무국 (문의 세례교육부: 010-3175-5550)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13. 이번주 심방 일정

9-3, 13-14, 16-5~6다락방

☑ 장 레

1. 故 유기찬 집사(4교구 윤용미 권사의 부군) / 5월28일(금) 별세, 31일(월)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995명	1,111명	3,106명	537명	1,376명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망국의 한에 통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뜻 있는 청년들은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받으면서까지 금신상에 경배를 거부했다. 망국의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다. 선지자 에스라는 기가 막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다.

조선 왕조를 망하게 한 것은 당쟁과 허례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것들을 반복하며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은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완전한 인간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이 백성이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며 일반 대중보다는 그 도덕 수준이 조금은 높아야 할 지도자들이 더 타락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주여, 이 길은 암흑을 몰아낼 우리의 새 아침은 언제나이까?”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 더라(행 11:21)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은 빛	박래경	안효주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